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미경 김윤주 김춘화 윤영원/이명희 박종삼 방석태/차욱자 백성원/안지영 성미영 오택현 유현호/이영미 윤정호/유욱자 이월숙 이창규/곽정순 임만순/서영숙 장복순 전병구/이인숙 조규영/윤혜란 채만기/장은주 채희춘/황영옥 최기훈/경계숙 최순재 황군옥/이경주 / 22명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요한 김춘화 박복래 방석태/차욱자 배경철 안지영 이명희 전병구/이인숙 최기훈/경계숙 최순재 최정규/김미영 베드로남전도 새롭애니메이션 흥한표 / 14명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문수경 강봉석 김병율/이영숙 김현구/서재희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정숙 박종삼/이명원 손영화 유승용 이미지 이월숙 이찬호 이향교 임만순 전병구/이인숙 전순복 정기성/심순옥 채만기 채영엽 최봉순 최성현/윤정자 / 22명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요한 김경엽 김명숙 김민석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김혜란 민옥희 박순자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소은 이승애 이인숙 전병구 정복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알말식 이노를 정승현 / 39명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2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시편 87편 1절 ~ 7절		
월요일	시편 88편 1절 ~ 18절	목요일	시편 89편 38절 ~ 52절
화요일	시편 89편 1절 ~ 18절	금요일	사도행전 1장 1절 ~ 11절
수요일	시편 89편 19절 ~ 37절	토요일	사도행전 1장 12절 ~ 26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래 김요한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김한나 호산 나: 김안나 시온·에덴: 최원지 엔젤: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김성경 공희라 정희연
		블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옥 미국: 김다니엘 미국: 최옥희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모잠비크: 홍두표 강순영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05. 20. 주일 예배 설교	영적 해갈을 경험하려면	설교자 이진우 목사
이사야 55장 1~13절		

과거 한 시인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필 날을 기대하며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욕망에 대한 목마름, 의미에 대한 목마름 등 많은 갈증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목마름에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 우리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갈증을 꼽으려면 돈과 권력과 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과연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함, 목마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컨대 우리는 엄청난 재력을 소유한 기업가들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도모하다 법의 심판을 받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양식을 위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음료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을이나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욕망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도모를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누구나 도박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과 헛된 기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방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돈과 권력과 이성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값없이 공급받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계속 공급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목마름 대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나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존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거듭나며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진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즐거움을 경험하며,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본문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나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부족한 것을 채움 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상적인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해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소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지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과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SINCE 1975

No. 44 - 21

2018. 05.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0분(로템나무)

(3부) 오전 11시 30분

묵도

(Silent Prayer)

사회: 강 영 성 장 로

인도: 김 요 한 전도사

인도: 이 진 우 목 사

할렐루아찬양대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양

찬송가 320(통350)장

다

갈

이

(Praise)나의 죄를 정케 하사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방 원 식 집 사

(Prayer)(3부) 강 영 성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이사야 60장 1~9절(구약p.1040)

오 영 순 권 사

(Scripture)[2부] 고린도전서 4장 2절(신약p.266)

찬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3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John Stainer)할렐루아찬양대

설교

[1,3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진 우 목 사

(Sermon)[2부] 하나님께 충성하라김 요 한 전도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양

찬송가 450(통376)장

다

갈

이

(Praise)내 평생 소원 이것뿐

축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묵도

도

성시

시편 21편 1절

간구

찬양

찬송가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기도

성 경 봉 독

전도서 2장 1~11절(구약p.946)

찬양

설교

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광고

찬양

찬송가 322(통357)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축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찬양

기도

[6월13일: 박희영권사]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6장 1~4절(신약p.316)

설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템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제1교육관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